

2011년 2월

석사학위 논문

# 손창섭 초기 소설 연구

- 인물들의 몰화 양상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주 선

# 손창섭 초기 소설 연구

- 인물들의 물화 양상을 중심으로

A Study on Early Novels of Son Chang-sup

- Focused on Reification of Characters

201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주 선

# 손창섭 초기 소설 연구

- 인물들의 물화 양상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형 중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주 선

# 김주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혜영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문석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형중 (인)

2010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b>1. 서 론</b> .....	1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	1
1.2. 연구 목적 및 방법 .....	4
<b>2. 물화의 양상</b> .....	7
2.1. 자기 물화와 세계 .....	7
2.2. 타자 물화와 세계 .....	17
<b>3. 절망의 양상</b> .....	25
3.1. 연약함의 절망 .....	27
3.2. 반항의 절망 .....	31
<b>4. 자연적 인간에 대한 역설적 긍정</b> .....	36
<b>5. 결론</b> .....	45

## 참고문헌

# ABSTRACT

## A Study on Early Novel of Son Chang-Seop - Focused on Reification of Characters

Kim Ju Seon

Advisor: Prof. Kim, Hyoung-Joong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on Chang-Seop takes repeatedly the mediocrity of human being as main subject in his early works. Literary critics are arguing each other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is subject; some claim that Son Chang-Seop looks at human being with contempt, and other critics suggest that the subject of the mediocrity of human being stems from the confrontation with the disastrous situation of the Korean war, with the others. Some critics who employ the technical methods of psychoanalysis argue that the author's subject is the result of the failure of entering into the Imaginary due to the lack of the *pahallus*. We could content from these arguments that the author's subject is linked with the human being who feels that the existence of his life and the word are meaningless. This human being is 'reificated' and despairing. But many people, based on their proper values, 'reificate' the others for their own benefit. That is why conflicts between men are strongly emphasized and human values for which people have long believed in are denied in Son Chang-Seop early works. The author's early works result in natural human being, and this human being is the natural result of the reificated social values.

# 1. 서론

##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1952년 『문예』지에 「공휴일」을 발표하며 등단한 손창섭은 파격적인 인물 군상과 그 만의 독특한 미학으로 주목받았지만, 논자들에게는 주로 부정적인 평을 얻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조연현<sup>1)</sup>의 견해로, 손창섭 초기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인 등장인물의 불구성을 시대상황과 무관한 ‘비정상성’으로 보고 ‘한갓 병신의 노래와 절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sup>2)</sup> 반면 이어령<sup>3)</sup>은 손창섭 초기 소설의 불구자들이 피폐한 전후 세계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평을 내렸다.<sup>4)</sup> 당대의 비평은 손창섭 초기 소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지만, 그의 소설이 처참하고 비참한 절망의 세계를 살아가는 불구적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초기 연구는 손창섭 초기 소설이 보이는 부정적 인간형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한계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전후시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존주의적 정신이 손창섭의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고찰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두 갈래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문학작품과 사회의 필연적인 관련을 전제하여 외부 상황과 작품 내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입장이 하나<sup>5)</sup>, 실존주의적 의미는 외부

1) 조연현, 「병자의 노래-손창섭의 작품세계」, 『현대문학』, 1959. 4.

2) 이와 관련한 부정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윤병로, 「혈서의 내용 - 손창섭론」, 『현대문학』, 1958. 12

김우중, 「야유의 인생, 야유의 문학」, 『사상계』, 1959. 4

김상일, 「손창섭 또는 비정의 신화」, 『현대문학』, 1961. 7

이광훈, 「패배한 지하실적 자화상」, 『문학춘추』, 1964. 5

정창범, 「손창섭 - 자기모멸의 신화」, 『문학춘추』, 1965. 2

3) 이어령, 「유성군의 위치」, 『문학예술』, 1957. 2.

4) 이와 관련한 긍정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유종호, 「모멸과 연민」, 『현대한국문학전집 3』, 신구문화사, 1965.

이선영, 「아웃사이더의 반항 - 손창섭, 장용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 1966. 12

천이두, 「내성적 자의식적 소설론 - 불안문학의 계보와 관련하여」, 『현대문학』, 1968. 11

김병익, 「원형과 검증」,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7

5) 박현선, 「손창섭 초기 소설 연구 - 실존의식을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4.

김효진,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실존주의 경향」, 강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8.

상황보다 작품 내적인 상황을 우선시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또 다른 하나다.<sup>6)</sup> 전자의 연구는 손창섭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불구적 인물이 전쟁의 비참을 상징화한다고 주장한다. 손창섭 초기 소설을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는 있으나, 막상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할 인물 연구는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후자의 연구는 앞의 경향을 비판하며 손창섭 초기 소설의 인물이 전쟁과 무관하게 개인의 내면적 의식에 천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인간 존재의 근원을 고찰한다. 그러나 실제 연구는 작품의 내적 논리를 충실히 따라가며 실존주의적 의의를 새기는 게 아니라, 이론이 주장하는 존재의 근본 원리를 작품에 위치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서로 상이한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실존주의적 연구 경향이 공유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창섭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무의미와 절망, 불구성이 타자와의 마주침이나 처참한 전쟁 상황과의 마주침에서 기인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손창섭 초기 소설의 주인공들이 갖는 절망과 불구성이, 이미 소설 내적인 흐름과 무관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서술 기법으로 손창섭의 소설 세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하다.<sup>7)</sup> 이들은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서술 기법의 양상을 분석하고 시대 상황, 작가의식 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논의한다. 그간 내용에만 치우쳐 있던 연구를 형식적인 측면으로 넓혀 손창섭 문학의 특질을 밝히는 데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술 기법 연구는 허무주의나 절망, 우울을 어떻게 형상화 하고 있는가에서 멈추고, 그 이상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김현경<sup>8)</sup>은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사건이나 사물에 천착

---

이경원, 「손창섭 초기 소설 연구 - 실존의식의 확립과정을 중심으로 -」, 덕성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1.

6) 조미숙, 「손창섭 초기 소설의 실존주의 수용양태」, 창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8.

7) 이대옥,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풍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7.

정혜정, 「1950년대 소설의 풍자성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93.

김지영, 「손창섭 초기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96.

류동규, 「손창섭 초기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1998.

홍순애, 「손창섭 초기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2000.

박유희, 「1950년대 소설의 반어적 기법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2.

변여주, 「손창섭 초기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3.

김현정, 「손창섭 초기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창원대 석사학위 논문, 2010.



하여, 반복의 양상이 주체, 인물, 내용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텍스트의 시간도 공간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손창섭 소설을 1930년대부터 형성된 한국 모더니즘의 계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온 연구 경향인 정신분석적 연구가 있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정신분석 연구는 주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원용하여 진행<sup>9)</sup>되었다. 초기 정신분석적 연구는 손창섭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병리적 증상 설명하고 그 원인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연구가 손창섭 초기 소설의 창작 기제를 파악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는 점, 실제 작가와 「신의 희작」을 중심으로 한 내포작가를 동일시하여 연구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때문에 강유정<sup>10)</sup>은 내포작가를 상정하여 여러 단편소설과 장편 「낙서죽」을 중심으로 텍스트 내적인 분석을 하고, 실재적이고 상징적인 아버지의 붕괴가 어떻게 모든 가치의 무화와 연결되는가를 분석한다.

90년대 이후에는 라캉의 이론을 원용한 정신분석적 연구가 주를 이뤘다. 문화라<sup>11)</sup>는 손창섭 초기 소설의 인물이 여성에게 이중적인 욕망구조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사회의식을 가진 인물로 변해 가는 것을 드러낸다. 손창섭 초기 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여성에 대한 양가감정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배개화<sup>12)</sup>는 라캉의 이론을 원용하여 손창섭의 소설이 억압된 욕망의 심층 텍스트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결하는 분열증적 텍스트로 분석했다. 김지영<sup>13)</sup>은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소외를 이상적 자아 드러내기로 극복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말한다. 허영임<sup>14)</sup>은 앞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인물의 욕망에 주목하여, 소

8) 김현경, 「손창섭 단편소설의 반복 구조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5.

9) 송기숙, 「창작과정을 통해 본 손창섭」, 『현대문학』, 1964. 9.

신경득, 「반항과 좌절의 회화화」, 『한국 전후 소설 연구』, 일지사, 1983.

정창범, 「손창섭의 심층」, 『작중 인물의 심층 분석』, 평민사, 1983.

10) 강유정, 「손창섭 초기 소설의 자아와 주체연구」, 『국어국문학』 vol. -NO. 133, 2003.

11) 문화라,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욕망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12) 배개화, 「손창섭 초기 소설의 욕망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5.

13) 김지영,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주체형성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5.

설의 반복 양상이 상상계적, 상징계적, 실재계적인 형태로 등장한다는 점을 짚고, 공식화된 스토리로 인해 다양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이 라캉의 이론을 원용한 연구는 등장인물의 욕망 구조를 밝히고 그것이 그들의 변화, 그리고 텍스트의 구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라캉의 이론을 원용한 정신분석 연구는, 손창섭 소설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모티프인 유년의 정서적 결핍을 전혀 분석하지 않는다. 이들 연구는 주체의 상징화과정을 말하기 위해 남근(the phallus)부재를 이야기할 뿐이다.

이에 본고는 심리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무의미와 절망을 유년기의 정서적 결핍과 연관하여 분석한다. 이것으로 그동안 손창섭 소설에서 간과되어 왔던 부분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손창섭 초기 소설은, 대다수의 논자들이 지적하듯 뒤로 갈수록 평범한 세태소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대상은 손창섭 초기 소설 특유의 긴장이 잘 나타나고, 병리적 인간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1950년대의 모든 작품과 60년대 초의 몇몇 작품으로 한정한다.

## 1.2. 연구목적

## 및

## 방법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손창섭 초기 소설의 특징으로 거론되어온 것 중 하나가 작품 내 환경의 부재다. ‘전후’라는 시대는 ‘배경’으로서 존재할 뿐, 등장인물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 평론부터 가장 최근의 논문까지 계속해서 제기되는 주장이다. 가령 “손창섭은 객관 현실에 대한 탐구와 반영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작가이다.……그러므로 시간적 · 공간적 배경과 관련지어 손창섭 초기 소설을 이해하려는 독법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sup>14)</sup>는 해석이나, “소설적 제재나 사건들도 삶의 제반 연

14) 허영임,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욕망의 반복 양상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2000.

15) 정호웅, 「손창섭 초기 소설의 인물성격과 형식」, 『작가연구』 창간호, 새미, 1996. 4, p.53.

관을 규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절망감과 허무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소도구에 불과하다.”<sup>16)</sup>는 평, 그리고 “손창섭을 ‘전후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규정하는 기존 논의들의 반복되는 주장처럼 한국전쟁이 최종심급으로 작용할 정도로 중요한 창작 원천으로 기능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공종구<sup>17)</sup>의 주장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는 악셀 호네트의 이론과 키에르케고르의 이론을 원용하여 손창섭 초기 소설의 인물들이 보이는 병리적인 모습을 중점에 두고 연구할 것이다.

악셀 호네트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린아이의 상징계 진입을 설명한다. 이것은 거세가 어린아이를 상징계로 진입하게 만든다는 정신분석적 관점과도 다르고, 인간의 사회 적응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미국식의 자아심리학과도 다르다. 호네트에 따르면 갓난아이의 상징적 사고 발달은 준거인들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가능한데, 이러한 관점 취하기는 준거인들과의 정서적 동일시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sup>18)</sup> 다시 말해 갓난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인지적 측면보다 정서적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갓난아이가 대상에 대해 2인칭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자신 바깥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적(상징적) 관계에 들어선다.<sup>19)</sup> 그러나 단순히 2인칭적 관점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갓난아이는 상징계적 세계에 펼쳐져 있는 여러 의미를(감정영역을 동반하여) 파악하고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sup>20)</sup> 우리는 이러한 발달 과정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사회적인 언어로 표현해 내는 법을 배운다. 삶의 과정 중 마주치는 낯선 것에 대한 파악도, 그렇게 학습한 것을 토대로 분별해 내는 것이다. 한데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의미를 습득하는 것은 단순한 참여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 아이가 자신의 욕망이나 느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그런 것들을 표현해도 좋은 존재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sup>21)</sup>

16) 하정일, 「전쟁 세대의 자화상」, 『손창섭』, 새미, 2003, p.194.

17) 공종구, 「손창섭 소설의 기원」, 『현대소설연구』, Vol. -No. 40, 2009.

18) 악셀 호네트, 『물화 : 인정(認定)이론적 탐구』, 강병호 옮김, 나남, 2006, p.51.

19) 악셀 호네트, 앞의 책, p.50.

20) 악셀 호네트, 앞의 책, p.55.

21) 이에 대해 해리 프랭크푸르트가 한 말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해리 프랭크푸르트에 따르면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는 2차 욕구

호네프가 자기 물화라고 일컬었던 것이 이러한 사태와 관련된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왔다는 사실을 잊게 되면 자기 물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사태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지조차 할 수 없다. 손창섭 초기 소설의 인물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질 못했다. 때문에 그들은 작품 내에서 자기 자신과 세계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들은 생을 연장하기 위해 의무로 이루어진 삶을 살거나, 자기 인정 실패를 보상하기 위해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보인다. 또한 물화는 자기 자신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정서적인 인정 관계를 맺지 못하는 ‘나’에게 물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서적 인정이 선행된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망각하면 타자에 대한 물화가 발생한다.

한편으로, 자기 자신에게 무의미를 느끼는 자들은 그 때문에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이론을 참조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절망에 빠진 자는 ‘자기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호네프가 말하는 자기 인정 실패와 조응한다. 그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우울자가 절망하는 원인과 그 특징을 세세히 분석한 역작이다. 그는 이 저서에서 인간에게 ‘자기’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을 전개하고, ‘자기’를 상실한 절망자가 어떤 양태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지 세밀하게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가능성과 필연성을 동시에 갖는 존재이며 ‘자기’는 이 둘을 종합한다. 종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절망은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연약함의 절망과, 절망하여 자기 자신

---

(second oder desire)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욕구는 우리가 보통 직접 바라는 것, 욕구하는 것이다. 2차 욕구는 1차 욕구가 욕구의 대상이 되는 욕구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욕구하기를 바라는 욕구이다. 프랭크푸르트 자신의 예가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자신의 중독상태를 끝내고 싶어하는 마약 중독자를 생각해보자. 그는 마약을 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마약을 원하지 않기를 바란다. 프랭크 푸르트의 구분에 따르자면 앞의 것은 1차 욕구이고, 뒤의 것은 2차 욕구이다. 사람에게 2차 욕구가 가능한 것은 사람들이 반성적 평가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반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부터 2차 욕구가 생겨난다. 그런데 사람은 동시에 여러 2차 욕구를 가질 수도 있다. 이 여러 2차 욕구들 중에서 실제 행위로 이어지는, 행위효과를 갖는 욕구가 2차 의욕이다. 이 2차 의욕이 그 행위자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Frankfurt 1988 참조. 악셀 호네프, 앞의 책, p.87에서 재인용

이기를 원하는 반항의 절망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연약함의 절망을 지상적인 것에 대한 절망과 영원한 것에 대한 절망으로, 반항의 절망을 행동적인 자기를 갖는 절망과 수동적인 자기를 갖는 절망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악셀 호네트와 키에르케고르의 이론은 손창섭의 주인공들이 왜 무의미와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들이 왜 기이한 모습을 보이는지 분석하는데 좋은 참조점이 된다.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드러나는 물화와 절망은 인간이 갖고 있다고 여겨져 왔던 가치의 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자연적 인간에 대한 매혹으로 귀결된다. 본고는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보이는 자연적 인간을 분석하는데 루소의 이론을 참조한다.<sup>22)</sup>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 바로 문명에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적 인간은 평판이나 명예, 특권과 관계없이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 다였거니와, 그들이 알고 있는 행복이란 음식, 이성(異性), 휴식<sup>23)</sup>이 전부였다. 한데 문명 세계로 진입하자 재산의 많고 적음, 정신의 고상함이나 신체적 아름다움, 체력이나 재주, 장점이나 재능 등에 의해서 지위가 정해지게<sup>24)</sup> 되어, 온갖 시기, 질투, 욕망이 들끓게 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루소의 논의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요약된다.

위의 방법론을 원용한 연구는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것이 물화되고 절망하는 인간에 대한 탐구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보이는 것은 자기모멸과 인간모멸일 뿐, 사회에 대한 성찰은 부재한다고 비판받았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또한 기존의 실존주의 연구와 정신 분석 연구가 간과한 부분을 드러냄으로서 손창섭 소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2. 물화의 양상

---

22) 다음과 같은 손창섭의 말은 루소를 참조하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무렵 루소와 니체에게 도취되어 나는 열병환자처럼 된 적이 있었다. 특히 루소에게는 더 심하게 경도(傾倒)되었다. 루소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전부 내가 하고 싶던 말 같았고 그의 행동은 하나하나 그대로 내가 원해온 행동이었다. 손창섭, 「나의 작가 수업」, 『손창섭』, 새미, 2003, p.300.

23) 장-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주경복 외 옮김, 책세상, 2010, p.63.

24) 장-자크 루소, 앞의 책, p.111.

피터홉슨(Peter Hobson)과 마이클 토마셀로(Michael Tomasello)는 보통의 경우타자와의 정서적 동일시가 그 사람의 관점을 넘겨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상징적 사고의 발달로 이끌어가는 전제조건이 된다고 주장한다.<sup>25)</sup> 홉슨과 토마셀로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준거인들과 결속감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모든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을 수행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행하는 동일시(준거인들과의 정서적 결속감)를 통해 아이들은 구체적 타자의 현존에 의해 움직여지고 감동 받고 동기를 부여받아, 그 타자의 태도변화에 관심을 갖고 그를 따라하게 되기 때문이다.<sup>26)</sup> 여기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어린아이가 자신의 준거인들과 정서적으로 동일시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발달이 불가능하며 둘째, 준거인들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사회화 되는 게 다르다.

## 2.1. 자기 물화와 세계

앞서 언급했다시피 어린아이는 자신의 준거인들에게 애정을 받음으로서 그들과 동일시하는 법을 배우고, 그 동일시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넘겨받아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 맥락을 학습한다. 그러나 손창섭 초기 소설의 여러 인물들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자기 인정 실패로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어머니에겐 즐창 꾸들겨 맞구 색시나 손님들에겐 놀림감이 되구, 그러니까 방과 후에두 얼른 집에 돌아가지 았구 늦도록 학교에서 놀거나 혼자 거리를 쏘다니길 잘해요.”<sup>27)</sup>

이모부 내외는 종배를 가리켜 ‘죄악의 씨’라고 불렀던 것이다.<sup>28)</sup>

25) 악셀 호네프, 앞의 책, p.53.

26) 악셀 호네프, 앞의 책, p.53.

27) 손창섭, 『손창섭 단편 전집1』, 가람기획, 2005, p.386.

위의 인용문은 손창섭 단편 소설 중, 순서대로 「죄 없는 형벌」과 「소년」의 일부다. 두 인물의 성장 과정이 짐작되는 구절이거니와, 이들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가능케 하는 준거인들과의 정서적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두 작품 외에도, 한 인물이 어린 시절 자신의 준거인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부정당하며 성장하는 모습은 손창섭 초기 소설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불우한 유년시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그 이후에 겪는 여러 절망적인 면면들이 잘 나타난 작품은, 손창섭의 자서전적 소설이라 불리는 「신의 희작」이다. 여기서 작품의 중심인물인 S와 그의 준거인들인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살펴보자.

S가 간신히 제정신을 회복했을 때는, 누가 자기의 몸을 주무르고 있는 옆에서 조모가 정신없이 울고 있었고, 모친은 사색이 되어 묵묵히 내려다보고 서 있었고, 이웃 사람들의 얼굴이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뒤로, 어머니는 말끝마다,

“난 꼭 재 손에 죽을 거야.”

그런 소리를 뇌며 겁에 떨다가, 마침내 멧돼지 같은 그 남자와 함께 멀찍이 만주로 도망쳐버리고 만 것이었다.<sup>28)</sup>

여름철엔 별로 그런 일이 없었지만 겨울이 되면 위험천만이다. 요부腰部가 냉하면 으레 깔리게 되는 모양이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야뇨증이 원인을 발견해서 치료해줄 생각은 않고, 탄식을 하거나 욕만 퍼부었다. 그러니 창피하고 겁이 나서 밤만 되면 전전긍긍 했다.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잠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흥건히 젖어서 악취를 풍기는 요를 할머니는 울상이 되어 탄식하면서 햇볕이 잘 드는 울바자에 내다 널었다. 거기서는 연기 같은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그것을 바라보노라면, S는 자기 자신이 어이

28) 손창섭, 『손창섭 단편 전집2』, 가람기획, 2005, p.179.

29) 손창섭, 앞의 책, p.201.

없어 전될 수 없었다. 어머니 말대로 참말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지 않았다.<sup>30)</sup>

「신의 회작」의 S는, 어린 시절 자기 어머니에게 증오에 찬 눈빛을 받는다. 어머니가 외간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봤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 눈빛은 S에게 죽을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트라우마로 남게 한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을 스스로 내면화 한 S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기야 자살을 시도 한다. 자살은 실패로 끝났지만, 인용문에서 보듯이 S의 어머니에게 S의 안위는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살 시도는 S의 어머니에게 S에 대한 공포를 줬을 뿐이다. 마침내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만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서 어머니와 S 사이에 존재하는 정서적 유대감이란 S의 일방적 애정, 그러니까 어머니의 S에 대한 거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S에게 퍼붓는 비난을 볼 수 있다. S의 야뇨증이 그들 비난의 원인인데, 아침에 확인되는 흥건한 요의 흔적을 S에게 탄식과 욕으로만 돌려보내는 것이다.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에게 S의 야뇨증은 치료와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었다. 야뇨증이 병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S는 사람이 결코 하지 못할 짓을 하는 사람이었다. 비인간에 가까웠던 셈이다. 때문에 야뇨증으로 인한 자기 부정은 S에게 더욱 심각한 형태로 출현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야뇨증은, S의 머릿속에서 그 다음날 겪어야 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욕설, 비난과 상상적으로 결합시키길 강제했다. 게다가 S의 자기부정은 계속되는 야뇨증으로 인해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과정을 통해 S는, 또 다시 자기 스스로를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것을 내면화 한다.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는 야뇨증은 S에게 산 속에 들어가 자살을 시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S는 자살을 무려 두 번이나 시도하는 것이다.

S는 충동적으로 풀어놓았던 허리띠를 갑자기 집어 들었다. 그것은 다 떨어져가는 넥타이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 한 끝을 목에 감아맸

---

30) 손창섭, 앞의 책, p.202.



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나무로 기어올라가, 길 반쯤 되는 가지에 나머지 한 끝을 비끄러매고 늘어진 것이다.<sup>31)</sup>

모든 존재에게 자기보존본능이 내재한다고 말한 스피노자의 말을 굳이 끌어올 필요도 없이,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S의 자기모멸,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은 지독히도 극단적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주체가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바깥으로 표현될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혹은 그러한 느낌이 잊혀 질 때 자기 인성의 물화가 발생한다.<sup>32)</sup> 그러므로 욕구나 감정, 의도를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긍정할 만한 부분들로,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상호작용 상대방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으로 체험해야만 한다.<sup>33)</sup> 이렇게 성장하고 발달 할 때, 사회의 의미망 내에서 통용되는 기호 코드를 익힐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느끼게 된다. 세계 역시 스스로 의미 있는 존재가 세계에 존재할 때만, 그 존재에게 의미를 띄고 다가서는 것이다. 물론 손창섭 초기 소설 모두가 이런 식으로 유년을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공허와 절망 등이 '인간성'에서 기인하고, 환경과의 관계는 미약하다는 점(때문에 전쟁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배경은 있되 환경이 부재하기 때문에 성격이 고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sup>34)</sup>을 미루어, 그의 소설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로 묶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창섭의 등단작인 「공휴일」을 보자. 이 작품은 이후에 발표되는 손창섭 작품 세계의 중요 모티프를 보여주는데다가, 작중 인물의 무의식적인 측면까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도일은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휴일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에게 공휴일이라는 것은 좋을 것도, 안 좋을 것도 없는 여느 하루와 똑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래도 상관 없다는 태도는 정확히 그의 세계관인데, 자신의 약혼녀가 자기 집에 놀러 오

---

31) 손창섭, 앞의 책, p.207.

32) 악셀 호네프, 앞의 책, p.86.

33) 악셀 호네프, 앞의 책, p.89.

34) 송하춘 편, 앞의 책, p.204.

는 것도, 자신과 한 때 사귀었던 아미가 결혼식을 올려도 무감하다. 그가 느끼는 감정이란 무감하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삭막함 정도다. 심지어 그는 이성의 몸에서조차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 여인의 살가죽에서 돼지비계를 연상하고, 어깨에서 하마의 등덜미를 연상할 뿐이다. 이렇듯 그의 무감각은 무의미와 함께 찾아온다.

……남자들은 흔히 여성의 육체미라는 것을 말하지만 아직도 아내를 가져보지 않았고, 여자의 나체를 본 경험이 없는 도일은, 여동생의 어긋죽지에서만 생각할 때 도대체 어디에 여자의 육체미라는 것이 있느냐고, 발달되지 못한 자기의 감각을 한탄하는 일조차 있었다.<sup>35)</sup>

인용문에서 이야기하는 발달되지 못한 감각은 이성의 몸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만,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인간에게 특정한 의미를 띠고 나타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학습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일이 여타의 것에서도 갖는 무감각에 대한 은유로 보는 게 적합하다. 약혼녀인 금순이 자신의 방에 들어왔을 때 도일이 보이는 반응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준거인들이 보이는 모습에 따라 사회화 되는 게 다르다고 했거니와, 가라스 양말(속살이 보이는 스타킹)을 신은 금순의 발이 ‘자기의 턱밑에 추켜들고 혀끝으로 쭈뼛 훑아달라고 조르거나 앓을까 싶어’ 맘을 쓰는 도일의 사고방식에서 일반적인 발달 과정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의 의미부재는 주변여성에게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무의미를 느끼는데다가 혈연마저도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 어머니에게 당신이 직접 나를 낳으셨냐고 묻거나, 자신의 친동생인 도숙에게 도숙씨라고 호명하는 모습은 그의 무의미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보여준다. 위의 논의는 그가 어린 아이일 때 준거인들과의 정서적 동일시에 실패 했다는 점을 알게 한다. 물론 「공휴

---

35) 손창섭, 『손창섭 단편 전집1』, 가람기획, 2005, p.39.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말해 이성에 대한 허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의 소설에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종종 긍정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도일 말대로 ‘발달되지 못한 자기의 감각을 한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감각’에 대한 모티프는 「서어」에서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일」에서 도일은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극진히 사랑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과 가족, 그러니까 혈연에 대해 무수히 많은 냉소와 부정의 태도, 그리고 아미의 청첩장을 부고장처럼 만든 후 ‘그는 문득 뜻하게 않게 가느다란 한숨을 토하는 것이었다’는 구절이나, 금순과의 결혼을 생각하다가 ‘그만저도 모르게 숨을 몰아 내쉬었다’와 같은 구절은, 도일이 가정이나 혈연에 대해 갖는 무의식적인 차원을, 어린 시절 정서적 동일시의 실패와 관련하여 좀더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일은 자기 자신과 세계의 모든 것에 무의미를 느끼면서도 살아가고 있다. 그는 「신의 회작」의 S처럼 자살 시도를 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인물에게 도일은 흥미도 애정도 느껴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만 그에게는 의무만이 있을 뿐이었다. 아들로써, 친구로써, 은행원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만을 감당해나갈 뿐이었다.<sup>36)</sup>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삶은 의무로 점철된다. 어떠한 의미도 부재하는 상태에서 삶을 오래 지속시키고자 의지가 있으니(도일은 인절미만은 좋아한다),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의무 외에 답이 없는 것이다. 「공휴일」에서 볼 수 있는 의무로만 살아가는 세계, 발달되지 못한 감각, 특이한 성적 표현, 혈연에 대한 거부, 세계에 대한 무의미는 손창섭 초기 소설의 중요 모티프를 이루고 있는데, 「공휴일」 바로 뒤에 발표된 「사연기」에서도 비슷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사연기」의 등장인물 중 동식 역시 도일과 마찬가지로 세계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목숨이 꺼져가는 성규가 자신은 죽음만을 생각하는 반면, 동식은 생을 향락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려 한다.

생을 향락하다니? 생의 어느 구석에 조금이라도 향락할 수 있는 대견한 요소가 있단 말인가?<sup>37)</sup>

36) 손창섭, 앞의 책, pp.41~42

37) 손창섭, 앞의 책, p.53.

동식의 공허는 도일의 그것만큼이나 지독하다. 한데 멀쩡한 사람들과도 쉽게 정이 생기지 않는 동식이 성규를 찾아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정숙에 대한 일종의 의무감 때문인데, 사실 그는 성규와 정숙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정숙과 모종의 일이 있었던 것이다. 소설에서는 동식과 정숙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두 번 소개된다. 한 번은 그가 자기만의 방식으로(정상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애정표현을 보이는 사건으로, 중학교 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조그만 칼을 꺼내 정숙의 귀에 있는 검은 기미에 가져다 댄 일이고, 또 한 번은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 냇가에서 정숙을 만났을 때, 동식 자신이 정숙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모르는 채 충동에 의해서 둘이 정을 통한 것이다. 준거인들과의 동일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준거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따라 어린 아이의 발달이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중학생 때 보인 사디즘적인 애정 표현과,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정을 통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쳤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이로써 그가 삶에 갖는 무의미는 자기 자신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자기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란 존재에게 세계가 의미를 띄고 찾아오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작품에 등장하는 동식 역시 「공휴일」의 도일과 마찬가지로 의무로 타인을 대한다.

……차차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독신의 불편을 느끼게도 되고, 가끔 결혼을 원하는 이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것의 번거로움과 짐스러움이 앞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렇지만 앞으로 성규가 죽은 뒤 당분간만이라도 정숙이와 한집에서 어름어름 지내게 되노라면, 동식은 오랫동안 정숙에 대해서 지녀온 어떤 의무감(책임이라도 좋다)에서라도, 새로이 덮어 씌워지는 운명의 그물을 벗어보려고 끝까지 버둥대지는 못할 것만 같았다.<sup>38)</sup>

---

38) 손창섭, 앞의 책, pp.64~65.

동식은 정숙과 정을 통한 ‘사건’을 ‘그때 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정숙에 대해 갖고 있는 오랜 ‘의무감’도 ‘이 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표현한다. 동식에게 자신과 정숙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일’ 이상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그러니 동식과 정숙의 결혼은 설사 성립되더라도 결코 애정에 의한 혼인이 아니다. 동식에게 혹여나 하게 될지도 모를 결혼의 이유는 독신에 대한 불편이나, 정숙에 대해 느끼는 일말의 책임감이 전부다. 그것도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해결의 장」에 등장하는 지상 역시 자기 인정에 실패해 있다. 한데 그로 인해 보이는 모습은 앞의 두 소설과 조금 다르다. 「공휴일」의 도일과 「사연기」의 동식이 세계의 의미 부재로 의무로만 살아가는 삶을 보였다면, 여기서는 자기 인정에 실패한 지상이, 자기 바깥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먼저 지적해야 할 지점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혈연관계에 대한 거부다. 이 작품에서는 소설의 첫 단락에서부터 혈연관계에 대한 무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나는 도무지 주위와 나를 어떠한 필연성 밑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당장 이 방 안에 있어서의 내 위치와 식구들과의 관계부터가 그러하다.<sup>39)</sup>

인용문은 단순히 혈연관계에 대한 거부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문장은 바로 다음 단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어 있다. 지상의 집안에서는 지상과 모친을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미국에 대한 유학에 들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미국은 반드시 한 번씩 다녀와야 하는 곳이다. 하여 미국에 대한 유학을 포기한 지상은 살 가치라곤 없는 사람이고, 미국에 대한 열정이 없는 지상은 경멸 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러나 한 편으로 지상은 도리어 그들에게서 부조리함을 느낀다. 지상은 자신을 경멸하는 여동생 지숙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웃음을 본 적이 없다. 그

---

39) 손창섭, 앞의 책, p.162.

런 그녀가 느끼는 즐거움은 ‘남을 비판하고 경멸’할 때 오는 쾌감이다. 지철과 지웅은 ‘영어 실력 여하에 따라 인간의 자격을 평가하고, 양행洋行을 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려’ 들며, 겨우 열한 살짜리 지현은 ‘겉 핏하면 한다는 소리가 “난 커서 미국 유학 간다누”다.’ 게다가 지상의 집안 형편은 또 어떤가. 경제적 활동이라곤 ‘안면 있는 몇몇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그냥은 사용할 수 없는 구제품을 헐값으로’ 사와, ‘집에서 그걸 일일이 뜯어가 지고 각종 아동복을 재생해서 시장에 내다 넘기는’일 뿐이다. 한 마디로 푼돈 조금 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들의 ‘밥은 아침 뿐이요, 저녁은 우유죽인 경우가 태반’이며, 그나마 ‘생활 밑천으로 남아 있는 재봉틀마저 까딱하다가는 빚값에 거덜날 염려’가 있다. 지상은 집안 식구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상황임에도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상 자신도 그렇지만, 그들이 갖는 방식으로도 지금 여기의 삶이 갖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뱀은 ‘미국’이라는 단어에 스스로 흠족해한다.

“어디가, 형?”

학교가 파하고 나서 신문을 팔다가 돌아오는 지철이 놈이다.

“미국!”

나는 엉뚱한 그 한 마디를 던지고 분주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나는 만족했다. ‘미국!’ 그 대답이 웬일인지 스스로 몹시 흠족한 것이었다.<sup>40)</sup>

여기서 지상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비판하는 한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지상이, 자기 바깥에서 인정받음으로서 자기의 부재를 메우려 하는 것이다. 지상의 인정 욕망은, 지상이 밥을 사먹으러 가는 장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40) 손창섭, 앞의 책, p.169.

……몇 군데 기웃거리다가 나는 마침내 어떤 양식집으로 들어갔다. 의자에 앉아서 메뉴를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가 적혀 있다. 그 가운데 ‘돈가스’라는 글자가 있었다. 왜 그런지 나는 그 발음이 내게 알맞은 것 같았다. 만듯국만은 못해도 나는 오래간만에 돈가스와 백반을 먹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즉, 그 밑에는 300환이라는 가격이 기입되어 있었다. 옆에 와 지키고 있는 소녀더러 나는 돈가스는 얼마냐고 물어보았다. 소녀는 좀 깔보는 눈치로,

“거기 적혀 있는 대로예요.”

했다.

“틀림없이 300환이란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나는 일어서는 수밖에 없었다. 200환밖에 소지금이 없으니, 100환을 더 장만해가지고 오겠다고 일러놓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질 않는 것이다. 나는 되돌아가 그 소녀에게 10분 안으로 꼭 100환을 더 마련해가지고 오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소녀뿐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나를 경멸하는 눈치로 바라보는 것이다.

(……)

아까의 그 소녀는 눈에 띄지 않았다. 몸이 불편해서 방금 돌아갔다는 것이다. 나는 실망한 것이다. 광순을 떠밀 듯이 하고 나는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우리는 결국 탄 음식점으로 가서 비빔밥을 먹기로 한 것이다.<sup>41)</sup>

무엇이 되었든 ‘기름이 흐르는 백반’을 먹겠다는 지상이 찾아 들어간 곳은 하필이면 ‘양식집’이다. 게다가 그는 왜 그런지 몰라도 ‘돈가스’라는 발음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가스 가격이 수중에 있는 돈보다 크다는 것을 소녀(종업원)에게 확인하자 일어서는 수밖에 없게 된다. ‘돈가스’가 먹고 싶다면 가게 밖으로 나와서 돈을 더 가져오면 될 일이다. 그러나 지상

---

41) 손창섭, 앞의 책, pp.183~184

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소녀에게 반드시 '10분 안으로 꼭 100환을 더 마련해 가지고 오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돈은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수중에 없으니 곧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나서야 가게 밖으로 나온다. 그는 광순을 만나 다시 양식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기름이 흐르는 백반 한 그릇'이 필요한데다가, '돈가스'라는 발음이 알맞다던 그는 비빔밥을 먹으러 가버린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그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할 소녀(종업원)가 가게에서 퇴근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상은 자기 바깥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진 인물이다. 그런데 이렇게 '물화'된 '나'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자기 바깥에서 해결책을 찾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소설에서도 지상은 결국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결국 자신을 채우는 것은 나 자신인데, 자기와 자기 자신을 연결하는 고리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나 바깥의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끝없이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상이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자기 인정 실패를 갖는 존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한 것일까? 당겨 말하건대, 있다. 지상은 광순이라는 여인에게 매혹된다.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하다. 광순은 지상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숙이와는 꼭 반대로 '언제든 눈부신 미소가 사라질 적이 없'으며, 지상이 돈을 요구하면 언제라도 얼마간 쥐어주고, 지상이 원하면 광순의 직장인 매춘업소에까지 들어설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광순이 부탁을 잘 들어준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지상이 광순에게서만 유독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정확히 말해 광순이 무엇을 해도 자신을 긍정해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광순의 무조건적인 친절과 배려는 지상의 인정 욕망, 즉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일정부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광순의 친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지상이 '왜 그런지' 몰라도 '광순의 이불 속에 들어가 누우면 잠이 잘' 오고, 광순을 생각할 적이면 항상 '덮어놓고 웃는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요컨대 S와 도일, 동식, 지상은 어린 시절 준거인들과의 정서적 동일시 실



패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데 실패한 인물들이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니 자신에게서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세계의 모든 것들도 의미 없이 다가온다. 그들은 자신의 무의미한 상태를 살아내기 위해 세계와 의무적 관계를 맺거나, 실패한 자기 인정을 채우기 위해 자기 바깥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으로 그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우울과 절망을 느끼기도 하는데, 절망자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2.2. 타자 물화와 세계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손창섭 초기 소설에는 자기 물화뿐만 아니라 타자 물화도 존재한다. 그들은 자기 물화된 인물과는 정확히 반대 선상에 위치한다. 자기 물화된 자들이 세계에 대해 무의미를 느끼며 삶을 연명하는 반면, 타자를 물화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옳음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한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데 실패하거나,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인정을 선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 물화가 발생하는 것처럼, 타자를 인식하기 전에 선행하는 인정을 부정하도록 강제하는 신념체계에 매몰될 때 타자 물화가 발생한다.<sup>42)</sup> 이와 관련하여, 「미해결의 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물화시킨다. 그들은 말만 앞서고 행동은 결코 찾아볼 수 없거니와, 특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념체계로 타인을 물화시키면서 자신들의 허례허식을 정당화한다. 다음을 보자.

……문 선생은 우리 대장과 장 선생 앞에서 광순의 직업을 사실대로 고백한 것이다. 동시에 어린애처럼 소리내 울면서 이제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노라고 했다. 대장과 장 선생은 잠시 말을 못하고 얼굴만 마주 보았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판에 박은 듯한 그들의 인생론을 한바탕 피력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생활로 돌아가야만 인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렇건만 현대인은 거개가 비진실한 생활의 감탕 속으로만 빠져 들어가고 있

---

42) 악셀 호네프, 앞의 책, p.71.

다는 것, 그러나 자기네 진성회 동지들만은 초연히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 뿐 아니라, 나아가서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사업에 일생을 고스란히 바치자는 내용인 것이다. 물론 그러한 담론 가운데서 대장은, ‘나보다 약하고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 했고, 장 선생 또한 ‘사필귀정’을 말끝마다 연발했던 것이다. 그러한 대장과 장 선생의 생각으로는, 광순의 생활 방법이란 진실이나 성실과는 정반대로 여지없이 타락한 윤락의 생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sup>43)</sup>

「미해결의 장」의 문 선생은 ‘완전히 생활 능력을 상실한 폐인’으로서 ‘사변 전부터 위장병이 나왔다 더했다’하는 사람이다. 문 선생은 ‘대개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경제 능력이 없는 문 선생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매춘을 하는 동생 광순의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장 선생은 문 선생과 다르게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다. 그는 ‘보통 사람의 두 배나 되는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다. 그 역시 문 선생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형편을 꾸려나가기 위해 하는 일이 전무하다. 한 마디로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아들만 6형제가 있는데, 부인의 수입만으로 여덟 식구의 생계를 유지한다. 지상(나)의 아버지인 대장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의 집은 ‘몇몇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그냥은 사용할 수 없는 구제품을 헐값으로 사와, 그것을 다시 일일이 뜯어가지고 각종 아동복으로 재생해서 시장에 내다’파는 일을 하고 있다. ‘대장’은 ‘집에서 제품 일을 거들기는 해도 물건 보따리를 둘러메고 밖으로 나다니지는 못하는’데, ‘그것은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중병을 치르고 난 사람처럼 야윌 대로 야위’어서 ‘해골처럼 뼈만 남아 있’어도, 바깥을 돌아다니며 구제품을 사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거나, 극히 미약한 수고를 보태는 것 이상은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사회적 체면과 위신만을 극도로 차

---

43) 손창섭, 앞의 책, pp.194~195.

리며, 타인을 물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올바른을 스스로에게 되뇌는 것뿐이다. 지상은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유령’이라고 표현한다.

“자넨 내 말을 통 못알아듣는구만. 내 속을 좀 알아달란 말이야. 내일이 바로 진성회 제6차 정기 총회가 아닌가? 그 동안 광순의 직업에 관해서 동지들을 숙여온 것이 나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그러기에 이번 회의 때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자백하구 나서, 어떤 가혹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였네. 그러나 혹시 자네가 밀고를 했다면, 벌써 회장이나 장 선생이 알구 있을 거란 말야. 그렇다면 나는 오늘 안으로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어. 그 수치스런 사실을 내 입 으루 고백하기 전에 동지들이 이미 알구 있다면, 나는 자살하는 길 밖에 도리가 없단 말이네.”

나는 입을 봉한 채 하릴없이 문 선생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그건 문 선생이 아니다. 문 선생의 유령에 불과한 것이다. 유령 이 아니고야 그렇게 맹랑한 말을 정색하고 지껄일 수 있을까?44)

지상이 말하는 ‘유령’의 존재는 다른 작품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난다. 「유실몽」의 상근 역시 부인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이다. 그는 「미혜결의 장」에서 등장하는 ‘유령’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능력이 없으나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한다. ‘남북 석탄 주식회사’라는 유령 회사에서 상무 취체역을 맡고 있는 상근은 철수(나)에게 회사의 한 자리를 주겠으니 이력서를 내라고 한다. 철수의 이력서를 읽은 상근은 그 즉시 문제점을 발견한다.

……학력란에 이르러 동경 모 사립대학 예과 1학년 중퇴라는 조목을 보더니, 이래선 안 된다고 그는 머리를 내저었다. 회사 규정상 과장 이상은 반드시 대학 출신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자기가 주장하면 체면을 보아서라도 들어주는 하겠지만, 위신 문제도 있고 하니, 아예 학력을 속이자는 것이다. 지난번에 자기가 그렇게 소개하지 않

---

44) 손창섭, 앞의 책, pp.188~189.

왔느냐고 하며, 어서 대학 졸업으로 고치라고 했다. 나는 허위 이력서를 꾸며서까지 과장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상근은 나를 경멸하듯이 큰 소리로 한바탕 웃었다.

“자넨 상계두 세상이란 걸 모르네기래.”<sup>45)</sup>

상근은 철수를 경멸하며, 그에게 세상을 모른다고 비웃는다. 상근과 남북석탄 주식회사의 동료들은 세상을 잘 알고 있는데 모두 회사의 ‘중역’을 하나씩 꿰차고 있다. ‘고블통대를 닦고 있는 50이 다 된 사내’는 부사장이고, ‘단추 떨어진 구제품 양복저고리를 입고 있는 사내’는 전무 취체역이며, ‘신경질적인 얼굴에 캡을 쓴’ 사내는 감사역, ‘콧등에 흉터가 있는’ 사내는 총무부장이다. 그들에게는 밤낮 나가살다시피 하는 다방이 있다. 그 다방의 이름은 ‘모란’인데, 다방 입장에서 그들은 ‘운이 좋아야 차 한 잔쯤 팔아주는 꽤’에 불과하다. 결국 ‘남북석탄 주식회사’는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만다.

「포말의 의지」에서도 동일한 사태를 볼 수 있다. 종배는 교회에서 원로급 장로를 맡고 있는 이모부와, 가장 열성적인 집사 중 한 사람인 이모 집에 얹혀살고 있다.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이유와,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악마의 자식이라는 호칭을 얻는다. 이모부 내외에게 그는 인간이 아니다. 교회가 설파하는 사랑이란 이모부 내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육체추」의 ‘성혜 애호원’을 방문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신문사나 잡지사 기자’가 오든, ‘유명한 목사나, 외국인 선교사나,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나, 시 혹은 보사부 당국의 관리’가 오든 똑같다. 그들의 동정은 하나같이 허식이다. 그들은 불구자를 보면서 ‘자신들의 육체는 완전무결함을 새삼스레 다행히 여기고 신께 감사’하며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물화시키며 허례허식만 차리는 사람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보니, 「미해결의 장」에서 자기 물화된 지상이, 모든 인간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 공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이라는 족속들은, 앞서 열거한 허례허식을 지겹도록 잔뜩 갖고 있는 해충에 불과한 것이다.

---

45) 손창섭, 앞의 책, p.258.

……나는 언제나처럼 어이없는 공상에 취해보는 것이다. 그 공상에 의하면, 나는 지금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병리학자인 것이다. 난치의 피부병에 신음하고 있는 지구덩이의 위축을 받고 병원체의 발견에 착수한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도 그 세균이 어떠한 상태로 발생, 번식해나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치료법에 있어서는 더욱 캄캄할 뿐이다.<sup>46)</sup>

한편으로 사회적 실천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회의 법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안정적인 관계를 보증한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간에 대해 순수하게 관찰, 등록 혹은 계산하는 실천이 법적 관계로 편입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생활세계적 맥락으로부터 자립화되는 곳에서, 모든 상호주관적 물화의 핵심으로 묘사된 선행하는 인정에 대한 무시가 생겨난다.<sup>47)</sup>

……방에 들어가보니 동욱은 담요로 머리까지 폭 뒤집어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이틀째나 저러고 자빠져 있다고 하며 동욱은 그 까닭을 설명했다. 동욱은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2만 환이나 빚을 주고 있었는데, 노파는 이 집까지도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버렸다는 것이다. 어제 아침에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또한 어지간히 감때사나운 자여서 당장 방을 비워내라고 위협하듯 한다는 것이다. 말을 마치고 난 동욱은, 요 땡퐁이 같은 년아, 글썽 이게 집이라구 믿고 돈을 쥐, 하고 발길로 동욱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년아, 2만환이면 구화舊貨로 얼마 줄 아냐, 2백만 환이야, 내 돈을 내가 떼었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나구, 그래, 내가 없으면 네년이 굶어죽지 않구 살 테냐? 너 같은 병신이 단 한 달을 독립으로 살아?<sup>48)</sup>

---

46) 손창섭, 앞의 책, p.170.

47) 악셀 호네프, 앞의 책, p.97.

48) 손창섭, 앞의 책, p. 89

「비오는 날」의 동옥은 다 쓰러져 가는 집을 담보로 주인 노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대로 떼인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집에 이사 오고 난 후에야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가 자신의 신세를 깨달은 시점이 파국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옥과 노파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로 이루어졌음이 자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 노파가 동옥과 동옥의 궁핍한 사정을 다 알고서도 사기를 쳤다는 점이다. 혹 동옥의 갑갑한 사정이야 모른다손 치더라도, 동옥의 장애는 잘 알고 있었을 주인 노파다. 게다가 다 쓰러져 가는 집에, 그것도 세 들어 사는 그들의 처지야 사실 빠른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은 주인 노파의 목적을 위해 희생된다. 요컨대 돈 없이 살 수 없는 현실과 직면한 가난이 만들어낸 주인 노파의 돈 욕심 앞에 ‘동옥과 동옥’이라는 인격체의 가치는 물화된 것이다. 변변한 직장도 없고 취직을 할 능력도 없는 동옥과 장애인 동옥이, 집을 구하지 못해 거리로 나가 벌어먹든 굶어죽든 주인 노파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생활적」의 봉수는 이웃인 동주(절망자)와 자신의 딸 순이가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

……동주는 옆 방에서 들려오는 순이의 그 무거운 신음 소리를 들으며, 순이보다는 도리어 자기가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춘자와 봉수가 저녁때 돌아와서 얼마나 놀랄까?……춘자나 봉수가 놀란다고 해도 그것은 물론 동주를 애석히 여겨서가 아니다. 도리어 봉수는 춘자와 이 집을 독점할 수 있게 되어 은근히 만족해할 것이다.<sup>49)</sup>

“오늘두 무사했군. 괜스레 죽었을까봐 걱정하면서 왔더니”<sup>50)</sup>

봉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안위쯤이야 어찌 되건 전혀 개의치 않는 인물이다. 다른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어 생을 망치건 말건 본인

49) 손창섭, 앞의 책, pp.101~102

50) 손창섭, 앞의 책, p.106.

은 아편을 팔아먹고 살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이웃의 아내(춘자)를 탐내고, 이웃의 재산(집)을 탐내는 일은 봉수에게 당연한 것이다. 심지어 봉수는 자신의 딸인 순이가 아무리 신음을 흘려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그의 말에 의하면 ‘웬만한 병쯤은 내버려둬서 저절로 낫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슨 병이든 나올 때가 되면 낫고야’ 말기 때문이다. 만약 ‘저절로 낫지 않는 병이라면 아무리 돈을 써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뒀야 한다. 봉수에게 돈을 병 치료에 쓴다는 것은 사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의 인생에 하등 보탬이 되지 않을 순이의 병에 돈을 쓴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그에게 순이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미약한 신경을 써야 할 ‘의붓’딸에 불과하다. 동주도, 순이도, 자신의 물적 욕망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생명체 이상일 수 없는 것이다. 봉수는 그런 인물이다. 따지고 보면 봉수가 순이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한 이유도 ‘그 여자의 장사 수완과 재산에’ 반했기 때문이지, 그녀의 인간 됨됨이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 봉수에게 중요한 것은 돈과 성욕에 관련한 누군가의 효용 가능성이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설중행」의 관식은 사람이란 그저 상품일 뿐이라고 말하며 고 선생에게 돈 많은 노처녀와의 결혼을 강권한다. 그 여인의 돈을 미끼로 자신이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고 선생은 그런 관식의 사고방식을 비웃지만, 관식은 고 선생에게 도리어 큰소리를 낸다.

“그러기에 선생님은 텔레시오. 평생 가야 선생님은 뭐가 뭔지 모르실 거워다.”

“대체 년 뭘 안다구 그러니? 네가 알구 있는 건 뭐냐?”

“난 내가 하고 싶은 거이 뭔지, 내게 필요한 거이 뭔지 그런 걸 똑똑히 알구 있어요.”

“네가 안다는 게 고작 그거냐?”

“암만해두 선생님은 텔레시오. 지금 세상에 경멸받는 걸 누가 겁내는 줄 압네까? 덮어놓구 속셈차려야 해요.”

“제법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승보는 격이구나!”

“똥칠을 겁내는 개가 뻔뻔히 개 구실 하나요?”<sup>51)</sup>

관식은 지금 세상에 경멸받는 걸 겁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관식에게 사람 구실이란 ‘덜어놓구 속셈’차릴 줄 아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그 속셈이란 자신의 경력을 속이든, 타인에게 사기를 치든 간에,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차리는 것을 말한다. 고 선생이 관식을 ‘개’에 비교하며 한껏 비꼬아도 관식은 ‘똥칠을 겁내는 개가 똘똘히 개 구실을 하’느냐고 반문할 뿐이다. 관식에게 있어 세계는 이미 진흙탕이므로 더러워지는 것을 겁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세계, 누구나 진흙 뒤집어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로 인식된다. 세계와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면 그곳의 삶은 비열하고, 잔혹하고, 악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삶이란 처참한 투쟁의 장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삶이 싸움의 연속이라는 모티프는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계속 반복되는 모티프다. 「잉여인간」의 익준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트리며, 「침입자」의 박치룡은 아예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하나의 전장이라고 표현한다.

“제대하고 사회에 나와서 무슨 일에 부닥칠 때마다, 나는 자주 그때의 치열한 전투 광경이 떠오르군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꼭 전장터와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적과 부딪치게 마련이다. 그들은 나의 진로를 막고, 나의 행복을 빼앗고,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 이미 현대는 생존 경쟁의 단계를 지나 약육강식의 시대라는 느낌이다. 경쟁에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꺼꾸러뜨려야만 살 수 있는 시대란 말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너들두 조그만 생활의 전사들이다. 죽지 않고 살려구 좀더 잘살아볼려구, 악착같이 싸우고 있는 인생의 전사들이란 말이다.…….”<sup>52)</sup>

박치룡은 현대 사회를 자신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치러낸 곳에 비유한다.

51) 손창섭, 앞의 책, pp.283~284

52) 손창섭, 『손창섭 단편 전집2』, 가람기획, 2005, p.36



전장이라는 비유에 맞게 현대 사회는 어딜 가든 적들이 있다. 그들은 나의 행복을 뺏어가고, 나의 앞길을 틀어막으며, 나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 그렇게 현대 사회는 약육강식의 논리만으로 존재한다. 조그만 어린아이조차도 다른 사람과 싸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타인을 먼저 짓밟아야 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물화하여 인간이 소모품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처참한 사회로 말이다. 때문에 「인간동물원초」의 ‘지식인’ 통역관은, ‘약자는 언제나 하늘만 사모하다 죽는 법’이니,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현실과 맞대면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동물원초」의 인물들은 그의 말을 정확히 입증한다. 그들의 현실은 오로지 힘에 의해 결정된다. 각자가 가진 힘에 의해 서열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도 핑핑이나 양담배는 방장과 주사장이 수의자락을 들추고 하는 못된 짓을 끔찍하게 생각하면서도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꿈만 꾸고 있는 것이다. 통역관이 항상 이들에게 냉소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통역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제한」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권투와 유도를 배운 하교를 통해, 전장으로 대변되는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준다. 제 몸 하나 제대로 간수 하지 못하는 홍 선생과 진수의 문제를 그 뛰어난 싸움 실력으로 단박에 해결해 주는 하교의 모토는 다음과 같다.

……여하한 경우든 남자에게는 행동만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하교였다. 행동이란 반드시 응분의 실력을 토대로 해서만 가능해지는 사상과 생활의 구체화인 것이다. 하교는 솔직히 말해서 홍 선생이나 진수를 인간의 하치로 여기는 것이었다. 주먹이 세든지, 권세가 있든지, 돈이 많든지, 그 세 가지 무기 가운데서 그래도 어느 하나는 갖추어야 사람 축에 끼는 사람이라고 하교는 생각하는 것이다. 홍 선생이나 진수에게는 그게 없다. 누가 때리면 맞고, 팔세를 하면 묵묵히 당하고, 굶으면 배를 졸라매고 한탄만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빌어먹을 인간들이냐. 앞으로 저것들이 어떻게 이 악착같은 세상을 뚫고 나갈까 싶은 것이다. 인생은 그대로 만사가 싸움인 것이다.<sup>53)</sup>

그러나 한 편으로 이것은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보이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한 가지 방편 이상일 수 없는데, 하교의 행동은 지나치게 적극적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하교가 보통 불량배와는 다르게, ‘언제든 자기에게 대항해오거나 저보다 센 놈만을 노렸고, 함부로 아무보고나 집적거리지는 않’아도, 그 지나침으로 인해 ‘다른 학교 훈육 선생을 때려눕히고 경찰 문제까지’ 일으켰던 것이다.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추구되어지는 인물은 하교와 사뭇 다른데, 이는 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3. 절망의 양상

앞서 손창섭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기 몰화로 인해 자신의 상태에 무의미를 갖는다고 논의했었다. 한데 그러한 인물 중에는 단순히 우울함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서 절망하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자기’가 없어 우울과 절망을 느끼는 자들은 키에르케고르의 논의를 참조하면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주저 중 하나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자기’에 관해 말하며, 자기를 상실한 자가 어떤 절망감을 갖게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상세히 고찰한다.

인간은 정신이다. 그런데 정신은 무엇인가? 정신은 자기이다. 그러면 자기는 무엇인가? 자기는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이며 또는 그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이다. 자기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이다. 인간은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자유와 필연의 종합이며, 간단히 말해서 종합이다. 종합은 그 둘의 관계이며, 이렇게 보건대 인간은 아직 자기가 아니다.

그 둘의 관계에서, 관계는 부정적인 통일로서 제3의 것이며, 그 둘은 관계에 이어져 있되 관계 안에서 관계에 이어져 있다. 이리하여

---

53) 손창섭, 앞의 책, pp.316~317

영혼의 조건 아래에서는 영혼과 육체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관계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만일 그 관계가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면, 이러한 관계는 긍정적인 제3의 것인데 이것이 자기이다.<sup>54)</sup>

키에르케고르에 있어서 정신과 자기는 동일하며, 자기는 반성이다.<sup>55)</sup> 자기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관계한다. 여기서 자기 자신, 즉 인간은 영혼과 육체, 무한과 유한, 가능성과 필연성의 세 개의 짝이 종합된 존재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능성과 필연성이 나머지 둘을 대표한다.<sup>56)</sup> 그렇다면 가능성과 필연성은 무엇인가? 가능성을 알기 전에 필연성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필연성이란 인간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구체적인 자연-사회-정치-문화적인 환경, 성, 종족, 개인적인 경험, 정서적인 안정감, 재능, 관심, 능력, 단점들을 포함하는 환경, 조건, 처지 또는 상황을 말한다.<sup>57)</sup>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신체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다.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나, 그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조건에 의해 제약받고, 억압당하며, 구속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기가 그렇게 유한한 자신인 한에서 자기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구속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능성의 존재다. 자기는 자신이 욕망하는 자기와 현실적 자기를 관계시킨다. 인간은 이 둘을 항상 종합해야 하며, 그것을 행하는 게 바로 자기다. 한데 여기서 자기는 단순히 종합으로서의 자신일 뿐이다. 진정한 자기는 종합된 자기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정립하는 관계다. 그러므로 자기는 자기가 현존하는 모든 순간이 생성의 과정이다.<sup>58)</sup>

자기는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데 실패할 수 있다. 이 때 인간에게 일종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이 기능장애를 일컬어 ‘절망’이라고 부르거나,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의 균형 내지 내면 역학의 심각한 붕괴를 의미한다. 절망은 자신으로부터의 어떤 이탈이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sup>59)</sup>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기를

54) 쇠렌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임규정 옮김, 한길사, 2010, pp.55~56.

55) 쇠렌 키르케고르, 앞의 책, p.86.

56) 쇠렌 키르케고르, 앞의 책, p.18

57) 임규정, 「키에르케고르의 자기의 변증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17.

58) 쇠렌 키르케고르, 앞의 책, p.84.

원하지 않는 연약함의 절망과,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반항의 절망으로 나누고, 다시 연약함의 절망을 지상적인 것에 대한 절망과, 영원한 것에 대한 절망으로, 반항의 절망을 행동적인 자기를 갖는 절망과 수동적인 자기를 갖는 절망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 3.1. 연약함의 절망

「피해자」의 병준은 서로가 서로를 물화시키는 세계에서 물화되는 자로만 존재한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사태에 절망하는데, 자기에 대한, 절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절망의 상태로서의 조건에 대한 그 어떤 무한한 의식도 없다. 그에게 절망은 단지 수난일 뿐이며 외부적 요인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일 뿐이다.<sup>60)</sup>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절망이 외부적 요인에만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키에르케고르는 연약함의 절망 중 지상적인 것에 대한 절망자라고 하였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그처럼 부부생활을 싫어하면서 왜 세 번씩이나 결혼을 하였느냐고 따지듯이 물어본 것이다. 순실의 대답은 간단한 것이었다. 첫째는 과부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고, 둘째는 용돈을 좀 맘 놓고 풍성풍성 써보고 싶어서라는 것이다.……정말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커다란 파오같이만 해석되는 것이었다. 그처럼 인간 행세에 도무지 자신이 서지 않는 그는, 누구 앞에서나 실없이 불안하고 비굴할밖에 없었다. 병준은 사람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개 같은 짐승을 대해서도 그는 기가 죽었다.<sup>61)</sup>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병준의 자기부정은 극단적이다. 자기 자신에게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

59) 존 D. 카푸토 지음, HOW TO READ 키르케고르, 임규정 옮김, 웅진, 2008, p.172

60) 쇠렌 키르케고르, 앞의 책, pp.117~118.

61) 손창섭, 앞의 책, p.131.

잘못으로 생각한다. 그는 그 자신이 인격체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그가 순실과의 대화 이후, ‘정말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그가 자기를 부정한 상태로 ‘펼연성’에 함몰되어 절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짐승 앞에서도 자신의 하찮음을 느끼는 병준이, 순실과의 결혼 이후로 급작스럽고 극단적인 자기모멸감을 가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절망이 순실과의 결혼 후 구체적인 모습으로 떠올라 그 스스로를 극도로 좌절하게 했다고 보는 게 옳다. 때문에 병준은 자신의 모든 절망이 외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도대체 자기가 이렇게까지 오금을 못 펴고 찢찢때는 것은 모두가 팔자에 없는 결혼의 소치라고 병준은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와서 병준은 애꾸눈 반장의 말을 들은 것을 몹시 후회하는 것이다. 자기 의사나 생활이 전적으로 무시당하고, 단지 장인과 여편네와 의붓자식인 대갈장군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계가 되고 만 것은 아무래도 결혼의 탓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sup>62)</sup>

병준은 자신의 모든 고통이 결혼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장인과 부인에게 그럴듯한 주장 한 번 내세워본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해 고려 할 수 없다. 그에게 ‘세상일이란 모두가 자기에게 박해를 가하기 위해서만 꾸며진 것같이 생각’된다. 자신을 둘러싼 사태에 절망하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준은 모든 사건과 수동적으로만 관계 맺는다. 세계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열리고, 그 세계와의 조응이 수동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닥쳐오는 모든 것이 병준에게 운명이라는 뜻이다. 병준이 사장에게 밀린 월급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인에게서 자살용 가루약을 받아먹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와, 닥달하는 아내와 장인에게 월급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죽기 직전까지 절망하며 자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sup>63)</sup>

62) 손창섭, 앞의 책, p.121.

63) 손창섭, 앞의 책, pp.126~127참조.

절망에 침식된 존재에게도 희망은 찾아온다. 이 희망은 병준이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희망인데, 병준이 절망하게 된 이유를 외부에서 찾았듯이 희망도 자기 바깥에서 온다.

……사장은 병준을 어느 중국 음식 집으로 안내해 갔다. 우선 술과 안주를 청해놓고 사장은 손수 병준의 잔에다 술을 부었다. 그리고 사의 형편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출판계 전체가 파멸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상 군소출판사로서는 도저히 유지해나갈 수 없는 위기에 있다는 것과, 그러나 자기만은 단 하나밖에 없는 사원인 병준을 위해서만이라도 끝까지 문을 닫지 않고 버티나가겠다는 것과, 그러노라면 한고비를 넘기고 차츰 펴나갈 수 있을 것이니 얼마 동안만 더 참아달라는 말이었다. 월급을 지불 못하는 자기 심정이 오죽하겠느냐고 하며, 돈만 들어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월급부터 청산해주겠노라는 것이었다. 병준은 그만 가슴이 뭉클하도록 감격했다. 그렇게 곤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만두라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티나가겠다는 사장의 말에 병준은 흥분한 것이다.……자기도 끝까지 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노라는 것이다.<sup>64)</sup>

병준은 자신의 외적인 상황이 갑자기 변하자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자기’ 부재로 내면 역학의 붕괴가 일어나 절망에 빠진 자신을 일순간 외부에서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 다시 필연적으로 절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절망을 의식하지 못하는 절망자가 자신의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 외적인 무언가를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 공허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병준이 사장의 말을 듣고 붕괴된 내면의 역학 관계를 일순간 회복시킨다 하더라도, 그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절망자가 절망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부재에서 파생되는 병준의 절망은 외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다는 말이다. 병준처럼 자기는 자신이 절망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자신을 정신으로 의식하는

---

64) 손창섭, 앞의 책, pp.132~133.

데서 가장 멀어진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이런 절망의 형태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다.<sup>65)</sup> 이후 병준은 자신의 외적인 상황이 주는 극도의 껍박 속에서 자신의 절망에 매몰된다. 그 속에서 병준은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결국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된다.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이 결국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게 만든 것이다. 「생활적」의 동주는 병준과 달리 자신의 절망적 상태에 대한 의식이 있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이런 절망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병준의 절망이 단순한 연약함의 절망이라면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66)</sup> 다음 인용문을 보자

동주는 봉수와 마주 앉아 수저를 놀리며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에 무의미를 느끼는 것이었다. 얼른 어떻게든 해야겠는데 하고 초조해 하면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송장처럼 외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움직여보지 못하는 위인이었다.<sup>67)</sup>

동주는 자신의 절망에 대한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역시 병준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의 절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절망으로 인해 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우울한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감은 눈앞에 이북의 노부모와 처자의 얼굴이 지나가도 자신이 죽지 못해 살아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어쩔 수 없는 환영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기 옆집 ‘순이의 신음 소리에 간신히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하루를 또 보내’는 일뿐이다. 그가 갖고 있는 내면의 역학은, 살아 있으니 살아 있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 동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절망하고,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절망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절망의 본성이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절망 때문에 더욱 더 절망한다. 그는 자신의 절망에 매몰 되서 자신이기를 원치 않는다. 동주에게 미래라는 이름의 가능

---

65) 쇠렌 키르케고르, 앞의 책, p.109.

66) 쇠렌 키르케고르, 앞의 책, p.134.

67) 손창섭, 앞의 책, p.103

성은 오로지 죽음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니 동주도 병준처럼 서로가 서로를 물화하는 세계에서 물화되는 자로만 존재한다. 사변이 터지고 남들은 모두 공산군에 나가기를 죽자고 피했으나 그는 끌려 나갔고, 마을에 하나 있는 우물물에 똥을 투척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도 부당함을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인 춘자와 옆집의 봉수가 연분을 맺어도 우울해 할 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세계에 무의미를 느끼는 자들이, 타자 물화가 격렬히 일어남에도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논의했다. 다음 절에서는 그러한 세계를 살아가는 또 다른 태도를 제시할 텐데, 이는 반항의 절망과 함께 나타난다.

### 3.2. 반항의 절망

앞서 살펴본 병준과 동주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연약함의 절망을 갖고 있었다. 한데 만일 절망하는 인간이 변증법적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면, 만일 그가 왜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가를 안다면, 거기에는 변동이 있고, 반항이 있다. 이는 절망하여 그가 자신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sup>68)</sup> 즉 다른 사람을 물화시키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싸움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절망만 하는 자신에 반항하여, 세계를 조금이라도 살아내려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런 한에서 반항의 절망자는 연약함의 절망자보다 더 반성적이다.

「혈서」의 달수를 보자. 그는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 반항하여 자기 자신이기를 원한다. 그는 연약함의 절망을 갖는 병준과 동주와는 달리 자신의 절망을 수동적으로만 경험하진 않는다. 다시 말해 그는 세계를 능동적으로 살아내려 노력한다. 그러나 그의 반항은 현실 세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절망을 의식하면서도 ‘자기’를 상상적으로만 구성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를 일컬어 ‘절망에 빠진 행동적인 자기’라고 명명한다. 다음을 보자.

---

68) 쇠렌 키르케고르, 앞의 책, p.144.



그의 헛수고는 비단 오늘에 한한 일만이 아닌 것 같았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출생 이전의 무한한 공간에서부터 이랬고, 앞으로는 또 죽은 뒤에까지도 영원히 이렇게 불행할 것만 같았다. 대문 없는 대문 안에 들어서며, 어쩔 수 없이 인제 나는 과멸인가보다, 라고 신음 소리같이 중얼거려보는 것이다.<sup>69)</sup>

위의 인용문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구직에 실패한 달수가, 절망을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오며 하는 말이다. 사실 달수의 거듭되는 구직 실패는 당연하기조차 하다. 12월에도 ‘염색한 미군 작업복 상하를’ 걸치고 있는데다가, ‘멍든 것처럼 퍼렇게 된 입술’과 ‘먼지투성이’의 얼굴을 가진 그를 보면 누구라도 부랑자로 생각할 것이다. 거기다 취직을 위해 하는 말이라곤, ‘나는 법과 대학생인데, 고학생입니다. 학비와 식비만 당해준다면 무슨 일이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전부인 그를, 상점 주인들이 채용해 줄 리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달수의 취직 실패 이유는 그의 직업적 능력과 무관하다. 즉 그의 문제는 취직을 위해 내미는 수단과 방법의 차원에 있는 것이다. 한데 달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저 ‘몇 달을 두고 진력해도 어찌서 자기만은 취직이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할 뿐이다. 달수의 뇌리에는 취직을 위한 ‘어떻게’가 부재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봤듯이 달수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달수는 자신이 영원히 취직할 수 없을 것만 같다고, 자신에게 남아 있는 것은 과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그 스스로 자신의 과멸이 필연적이라고 중얼거린다. 그럼에도 그는 병준처럼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거나,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사건을 수동적으로만 경험하진 않는다. 취업을 위해 (항상 실패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군대에 나가기 전에 대학교 법과를 마치고’, ‘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나 검사가 되었다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뚜렷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자신이 갖고 있는 절망에 반항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준석과 매번 반복되는 ‘운명적인 대립’도 마찬가지로

---

69) 손창섭, 앞의 책, p.138.

지다.

“그래 내가 군대에 나가기 싫어서 학교에 간단 말이야?”

“그러지 뭐야. 팔자에 없는 대학을 뺏 하러 다니는 거야?”

“공부하러 다니지 뺏 하러 다녀.”

“공부?”

준석은 그만 어이가 없다는 듯이 미친 사람처럼 웃어버린다.

(……)

“그래두 난 꼭 대학을 마쳐야겠는걸. 그러구 나서 군대에 나가두 되잖어.”

“이 자식아, 그렇게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긌이 공부할 처지가 돼서 대학엘 땡긴대문 종단 말이다. 그렇지만 네가 어디 대학에 땡길 팔자냐 말이야.”

“고학을 해서라두 되레 가난한 사람이 공부해야 되잖어.”<sup>70)</sup>

달수는 결코 준석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이야기 하며 준석을 반박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이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환기 시킨다. 가능성의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을 망각하려는 달수가 ‘자기’를 통해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만들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진지하다. 그는 자신의 기획에 무한한 관심과 의의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앞으로도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의 절망이 반성 없는 망상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파생적인 자기도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의해 본래의 자기 이상의 것을 자기에게 줄 수는 없다.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으로 남는다. 자기의 이중화(二重化) 속에서 자기는 자신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는다.<sup>71)</sup> 그는 자신을 기만함으로써 존재한다.

이제 달수와 매번 말싸움을 벌이는 준석의 절망을 보자. 준석은 불구이면서 동시에 가짜 상이군인이다. 준석이 갖는 절망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70) 손창섭, 앞의 책, pp.140~141. 그들의 말싸움은 소설이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71) 쇠렌 키르케고르, 앞의 책, p.145.

그의 신경질적이고 고압적인 모습도 이 때문에 나타난다.

……준석은 도대체가 실없이 화를 잘 냈다. 세상만사가 그에게는 하나도 비위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개중에도 달수의 언동은 더했다. 준석은 달수를 향해서만은 화를 내지 않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러한 자신을 저도 알고 있는 모양이라, 오랫동안 군대 밥을 먹어왔기 때문에 자기를 고분고분 말을 못하노라고 스스로 변명하듯 하기도 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준석은 가짜 상이군인인 것이다. 군속으로 전방에만 나가 있던 그는 한쪽 다리가 절단되어가지고 후방으로 돌아와서부터 어엿이 상이군인 행세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가 걸핏하면 달수보고도 군대에 나가라거니, 기피자라거니 하는 것에는 그러한 심리적 연유가 있는 것이다.<sup>72)</sup>

달수가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신체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준석이 불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달수보다 취직이 요원한 일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준석은 바로 그 취직 문제로 달수와 말싸움을 한다. 달수와 싸워 어떻게든(처음에는 말로, 다음에는 주먹으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콤플렉스인 육체적 한계에 대한 절망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준석이 창애를 임신시켜놓고 도리어 화를 내며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나, 자신이 얹혀사는 집 주인인 규홍의 가치관을 수시로 비판하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미 자신의 필연성에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약점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이외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반항의 절망이 더욱 잘 드러난 인물은 「서어」의 광호다.

그는 고아원 출신으로, 국민학교를 마친 이후에는 의식주를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했다. 아무리 급해도 어디 가서 ‘조력을 구할 데라곤 없었’으니, 생사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기 문제는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 짓고, 따라서 자기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작중 광호는 자신의 약혼녀인 정이와 결혼을 하려 한다. 한데 그는 정이의 백

---

72) 손창섭, 앞의 책, pp.152~153.

부가 짜놓은 결혼의 여러 절차, 가령 ‘청첩장은 최소 200장 정도 찍어 돌려야 하며, 식은 예식장을 빌려 신식으로 한 번, 집에 돌아와 구식으로 한 번, 이렇게 두 번은 올려야 하고, 일편 고급 승용차 열 대와 대형 버스 두 대를 불러 분승하고 시내를 한바퀴 돌아야 한다는 것’에 맹렬히 반대한다. 그에게 형식적인 절차는 불필요한 ‘악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장례 절차를 치르는 일에도 비판적이다.

……상을 당한 경우에도 가족들끼리 시체를 거적대기에라도 맡아서 가져다 묻든지 태워버리면 그만 아니냐는 것이다.<sup>73)</sup>

그에게 ‘결혼이란 결국 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마음의 준비’란 물론 결혼 이후 둘이서 살아갈 각오를 말한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그에 맞게 애도하면 될 일이지, 구구절절한 장례 절차를 치를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백부와의 싸움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기 바깥과 완전히 하고 단호하게 단절하려는 모습 역시 절망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과 관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가운데 타자와도 관계하는 관계이다.<sup>74)</sup> 광호는 자기 자신과만 관계할 뿐 타자와는 관계하지 않는다. 그의 자기는 타자를 자신과의 변증법적 관계로 끌어올 수 없다. 즉 그는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때문에 광호는 자신과 정이의 백부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 정이의 외숙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정이의 외숙이 곡진한 태도와 말로 광호의 입장을 심분 헤아려주고, 다시 정이 백부의 입장을 완곡히 표현한 다음에, 백부의 입장과 광호의 입장을 종합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도, 그는 변하지 않는다. 광호에게 거창한 결혼식이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권투 시합이나 씨름 대회’와 다를 바 없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정이의 외숙에게 침묵으로 일관한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약혼자인 정이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73) 손창섭, 앞의 책, p.204

74) 쇠렌 키르케고르, 앞의 책, p.56.

고집을 부린다.

……광호는 결눈으로 정이의 기색을 살폈다. 야들야들하던 그 얼굴이 요 며칠 동안에 현저하게 윤기가 가시고 살이 쪽 빠졌다. 광호는 정이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이의 백부와 자기의 고집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광호는 생각했다. 자기만 양보하면 이 괴로움은 완전히 일소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광호는 조금도 자기의 주장을 굽힐 수 없다고 더욱 마음을 도사려 먹는 것이었다.<sup>75)</sup>

이제 그는 심술 때문에라도 자기가 결정한 선택을 밀어 붙인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집착한다. 광호는 자기 이외의 모든 실존에 반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호가 보여주는 반항의 절망은 자기 너머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그의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이 광호의 틀림을 증명한다면, 그것은 그가 파멸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기를 원하며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이런 고통으로 모든 실존에 항의하기 위해 자신이기를 원한다.<sup>76)</sup>

#### 4. 자연적 인간에 대한 역설적 긍정

손창섭 초기 소설의 인물들은 삶에 무의미만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여 그 절망에 매몰될 지라도,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휴일」의 도일이나 「사연기」의 동식 등은 의무로만 이루어지는 삶일지라도 살아왔고, 결혼만 안 했어도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병준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순이를 보면서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는 「생활적」의 동주도, 모든 것에 무의미를 느끼는 「미해결의 장」의 지상도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거나 무의미를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내려 했고, 살아가

---

75) 손창섭, 같은 책, p.217.

76) 쇠렌 키르케고르, 앞의 책, p.153

려 했다. 때문에 그들은 무의미와 절망과는 별개로 경제적 활동만은 필요하다는 모습을 보였다. 한데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능함에도 특정한 가치를 내세워 자신의 허례허식을 채우고, 그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본고는 이것을 ‘타자물화와 세계’에서 다루고, ‘반항의 절망’에서 그러한 세계에서 절망을 느끼는 자가 취하는 태도를 다루며 가치의 무화를 언급했다. 여기서는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드러나는 가치의 무화가 어떻게 자연적 인간과 연결되는지 살피도록 하겠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그놈에겐 도의적인 의식이란 아주 없는 모양이야.”

고 선생은 혼자 중얼거리듯 했다. 귀남이가 얼른 그 말을 받았다.

“아직은 괜찮아요. 그러다 아주 위악적으로 흘러버리문 안 되지만요.”

“괜찮다니?”

“인제는 인간이 그 위선적인 습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럼 넌 인간의 타락을 긍정적인단 말이나?”

“위선두 일종의 타락이 아닐까요? 선생님은 미술가이면서두 왜 공식적 사고방식을 못 버리셔요? 인간이 습성화된 위선의 가면을 벗지 못하는 한 그 생활 자체가 도저히 멜로 드라마 이상일 수 없을 거예요.”

고 선생은 눈을 크게 뜨고 귀남을 보았다. 신선한 경이였다. 그 구겨진 논리의 제시보다도, 색다른 인간의 강한 호흡이 직접 피부에 스미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sup>77)</sup>

「설중행」의 귀남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숫제 연극이다. 그녀에게 진실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모두 진실해 보이기 위해 연기할 뿐이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공식적 사고방식이란 관습이나 인습일 뿐이고,

---

77) 손창섭, 앞의 책, p.298.

시대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고 선생은 이러한 귀남에게 ‘색다른 인간의 강한 호흡’을 느낀다. 즉 모든 가치가 무화되는 것에 매혹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자 처음에는 인간의 가치라는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고 선생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변화한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제자인 관식이,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라고 종용하는 것을 막지 않게 된다. 그래도 「설중행」의 고 선생은 자신이 인간적 가치라고 믿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관식, 귀남과 멀어지는 것을 택한다. 면식이 있는 화장품 가게 여주인이 피살당하자, 관식은 약혼한 사람이라고 우겨서 한 몫 뜯어내자고 하지만, 고 선생은 관식의 뺨을 때리며 ‘송장하구 같이 죽구 돌아오지들 말’라고 소리 지른다.

이렇듯 앞서 살폈다시피 손창섭 초기 소설에는 생일잔치나 졸업식 같은 간단한 예식에서부터,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도덕법칙까지 모두 무화된다. 인간이 갖고 있다고 여겨왔던 가치가 모두 무화되니 남게 되는 것은 인간의 육체성뿐이다. 그런데 인간이 오로지 육체성만 갖고 존재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 무엇인가? 손창섭 초기 소설 중 「인간동물원초」는 사회적 가치가 부재하는 감옥에서 육체성만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 작품을 두고 기존의 논자들은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그려내는 인간 모델이 직접적이고 원초적으로 드러났다는 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테지만, 손창섭 초기 소설의 귀결은 인간이 동물적이고 (루소적 의미에서)자연적인 존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동물원초」는 어떻게 인간이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가? 일단 소설의 공간부터가 그렇다.

……그들에게는 먹고, 배설하고, 자는 일만이 허용되어 있을 뿐이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주체스럽기만 한 것이다. 낮이면 부질없는 이야기로 지루한 날을 보내고, 밤이면 제각기 색다른 꿈으로 잠을 설치는 것이다. 날마나 우두커니 앉아 있는 그들은 곧잘 이야기마저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감방 안은 그야말로 동굴 속처럼 무거운 정적만이 차 넘치는 것이다. 게다가 땀내와, 변기에서 새어 나오는 구린내까지 더 심해지는 것같이 생각되는 것이

다.<sup>78)</sup>

소설의 배경은 감방이다. 이곳은 구린내가 심한 ‘동굴’같은 곳이다. 그들이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먹고, 배설하고, 자는 일’뿐이다. 그들은 인간의 생존본능이 가리키는 가장 원초적인 몸짓 이외의 것을 하지 않는다. 혹은 할 수 없다. 우리가 문명을 이야기 할 때는 흔히 서구 문명, 근대 문명, 산업 문명, 과학기술 문명 등을 동반하는데, 그 모두는 원시적인 생활보다 세련되게 발달한 것을 공통적으로 내포한다. 게다가 문명의 발달과 함께 가장 먼저 배척받은 것이 더러움과 악취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동굴’에서 ‘구린내’와 함께 살며, ‘먹고, 배설하고, 자는 일만’ 하는 사람을 두고 문명세계의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혹은, 그들이 감옥이라는 공간에 매몰되어 원시적 삶을 강제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명과 동떨어진 원시 세계의 법칙이란, 동물적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힘이 센 자가 우두머리가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혜 많은 연장자를 우두머리가 존중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 우두머리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2인자도 있다. 여기서 방장, 주사장, 좌장, 통역관의 관계가 그렇다.

……주사장, 좌장, 통역관,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방장 앞에서는 꿈쩍을 못하는 것이다. 방장이래서만 아니라 주먹이 쎈데다가, 살인 강도의 누범累犯으로 16년째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는 그의 경력 앞에 기가 죽는 것이다. 그러한 방장도 이상하게 좌장에게만은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다. 일방 통역관에 대해서는 몹시 아니꼽게 생각하고 베틀면서도 지식인이라서 그런지 마구 다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사장 역시 강도와 강간범으로 10년 이상이나 복역 중에 있는 사람이라 결코 만만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다.<sup>79)</sup>

알력 관계는 언제든 바깥으로 터져나갈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법이다. 방장과 주사장의 오래 묵은 원한 관계는 새로 들어온 ‘소매치기’를 두고 터진다.

---

78) 손창섭, 앞의 책, p.223.

79) 손창섭, 앞의 책, pp.231~232.



그 들은 이곳에서 공공연히 남색을 하는데, ‘소매치기’는 좌장이 “어디 좀 보자! 정말 남잔가?”라고 말하며 그의 사타구니를 들춰볼 정도로 여성스러웠기 때문이다. 방장과 주사장은 그 동안 각자 옆에 데리고 살던 ‘핑핑’이와 ‘양담배’를 버리고 새로 들어온 재소자를 차지하려 한다. 이것은 주사장이 방장에게 던지는 도전장이다. 마침내 그 둘은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방장이 주사장을 목 졸라 죽임으로써 마무리된다. 이렇게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동물의 세계지만 그곳에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향유하는 가장 큰 즐거움은 잡담인데, 그 중에서도 ‘먹는 애기와 여자 애기만은 언제나 매력’있는 소재다. 다른 이야기는 쉽게 질릴지라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자 동물적 욕망인 성욕과 식욕에 관한 것이라면, 언제나 즐거운 것이다.

사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에 관한 모티프는 그의 소설 이곳저곳에서 드러난다. 모든 것에 무의미를 느끼는 「공휴일」도 일도 ‘흰 팔고물 문헌 인절미를 무엇보다 좋아하’고, 「피해자」의 순실 역시 ‘세상 재미란 먹는 재미’라고 말한다. 「생활적」의 봉수는 ‘남자란 여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주장하며 ‘성현군자로부터 곤충 같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그 문제에서만은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유실몽」에 등장하는 철수의 누이 역시 ‘남자구 여자구 나이 들면 다아 저 볼 재미를 채우구’ 싶어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실몽」의 누이는 강한 행동성을 바탕으로 몇 식구를 먹여 살라는 생활력을 갖고 있으며 동물적 욕망에 충실하다. 다시 말해 그녀는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귀착하는 인물상, 즉 강한 생활력을 지닌 동시에 동물적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다.<sup>80)</sup>

누이는 술집 작부였다. 그러한 직업에 누이는 수재적이었다. 그 수재의 힘으로 몇 식구가 살아가고 있었다. 누이의 그 행동성은 강한 생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sup>81)</sup>

80) 누이의 강한 생활력과 왕성한 성욕은 「생활적」의 봉수와 비교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봉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타인을 물화시키는 인물이고, 누이는 술한 남성 편력을 가졌지만 불륜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손창섭, 앞의 책, p.249참조.

81) 손창섭, 앞의 책, p.247.

남자 없이는 살지 못하는 누이었다. 누이에게 있어서 남녀 관계란 단순히 자웅의 뜻으로만 통하는지도 모른다. 요즈음도 누이와 상근은 그 동물적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밤마다 바빴다.<sup>82)</sup>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는, 건강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강한 생활력과 왕성한 성생활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누이에게서 철수는 ‘강한 인간의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즐긴다. 때문에 철수는 자신의 매형인 상근에게서 허례허식을 본다.<sup>83)</sup> 또한 철수는 집안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장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새벽까지 공부를 하느라 극히 야윈 춘자를 응원한다거나 흐뭇하게 보지 않고, 가엽게만 생각한다. 철수에게는 건강을 버리고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교원 자격을 얻어야겠다는 춘자의 모습이 안쓰럽게만 여겨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철수의 생각(누이의 모습)은 프랑스 철학자 루소의 논의를 참조하면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미개인……그들의 욕망은 육체적인 욕구를 초월하지 못한다. 그들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행복은 음식과 이성(異姓)과 휴식뿐이다.<sup>84)</sup>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기후와 매서운 계절 변화에 익숙해졌고 피로를 이겨내도록 단련되었으며 벌거벗은 몸으로 무기도 없이 다른 야수로부터 자기 생명이나 먹이를 지키거나 그들 앞에서 재빨리 도망쳐야 했다. 이리하여 인간은 건강하고 거의 변치 않는 체질을 가지게 되었다.<sup>85)</sup>

루소에 의하면 자연적 상태의 인간은 얼마 안 되는 정념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뇌가 없었고, 모든 음식이 지천에 풍요롭게 널려 있었으

---

82) 손창섭, 앞의 책, p.249.

83) 타자물화와 세계를 다룬 걸 참조.

84) 장 자크 루소, 앞의 책, p.63.

85) 장 자크 루소, 앞의 책, pp.62~63.

므로 특정한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심이 없었다. 그들이 갖는 행복은 세 종류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충분했다. 게다가 그들은 매우 건강했는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의 거친 세계에 적응해왔고,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다. 자연적 인간은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미해결의 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친을 제외한 지상의 집안 식구들은 당장 먹고 살 방도가 없음에도 미국 유학이라는 꿈에만 부풀어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인간은 기초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조건<sup>86)</sup>이다. 기실 문명도 인간의 생존에 여유가 생기고 난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의 몸을 유지하는 활동이 없다면 생명체의 소진은 당연한 것이다.

……모친에게는 우선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물론 미국 유학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지내느냐 하는 것이 더 절박한 문제인 것이다. 간신히 하루 두끼를 먹어나가는 것도 저녁은 대개 우유죽으로 굶때는 형세에, 미국 가는 비용을 장만 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인 것이다. 미국은 차치하고 밥을 굶으면서까지 다섯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일이 과연 옳은지조차 모친은 잘 알수가 없는 것이다. 그 가느다란 목과 팔과 허리와 다리에 이미 모친은 집안을 꾸려나갈 자신을 거의 잃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친 혼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나날이 늘어만 가는 빚을 꺼나가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단 하나 생활 밀착으로 남아 있는 재봉틀마저 까딱하다가는 빚값에 거덜날 염려가 있는 것이다.<sup>87)</sup>

그러니까 모친은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는 뒷전으로

86)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으로서, 노동과 작업과 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노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의 근본 원리다. 자세한 것은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외 옮김, 한길사, 2009, pp.35~36. 참조.

87) 손창섭, 앞의 책, pp.278~279.

미뤄두고 미국 유학만을 외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의 현실성을 망각하고 공상으로 기능하는 인간의 가능성만을 추구한다면, 파국 외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빛에 쫓겨 달려 있는데도 그 빛을 좇는데 우선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재봉틀은 결국 빛값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지상의 다섯 동생이 미국유학에 대해 갖는 꿈, 그리고 대장의 위신과 체면이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지상은 자신의 집에 얹혀사는 선옥이 그녀 자신의 곤란 때문에 매일같이 우는 것도 마뜩찮게 여긴다. 지상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일이란 값싼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선옥은 우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지상은, 다소 과격하긴 하지만, 선옥의 오빠가 선옥을 양갈보로 팔아버리려 했다는 말을 듣고 선옥의 오빠에게 호감을 갖는다. 지상에게 인간의 의미는 맞닥뜨린 현실에 충실할 때 일정 부분 충족되는 것이다. 문 선생과의 대화를 보자.

“……내 병이나 광순의 운명은 도저히 동정이나 위로만 가지구는 해결날 수 없지 않은가?”

“해결?”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뜻밖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문 선생에게서 해결이라는 말을 들으리라고는 예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내 도로 누워버리고 말았다. 이 방 안의 공기도 역시 우리 집이나 매일반으로 무거운 것이었다.

“문 선생! 당신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이지. 죽기만 하면 만사는 마지막이니까!”

“물론이라구요? 그래 당신이 죽는다구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진단 말입니까? 당신만 없어지면 그래 지구덩이의 피부병이 완치된단 말입니까?”<sup>88)</sup>

여기서 문 선생과 지상의 대화는 초점이 조금 벗어나 있다. 문 선생은 동생

---

88) 손창섭, 앞의 책, p.196.

광순의 매춘을 언급하며, 자신이 그로 인해 얻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죽음’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지만, 인용문 마지막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의 발화는 복합적이다. 그는 그 문제를 인간 전체의 일로 확장함과 동시에, 문 선생이 지구덩이의 피부병과 광순에게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음을 비판한다. 지상은 문 선생의 방식을 비판함과 동시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문 선생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게다가 문 선생의 입장에서 광순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 해결은 광순을 매춘업소에서 빼내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죽음이 먼저 나올 수는 없다. 지상에게는 자살 역시 자기 삶의 회피에 다름 아니다.

한편 「유실몽」의 누이는 인간의 사회적 가치와 무관하게 행동한다는 점에서 자연적 인간을 구현한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누이 옆에는 제법 미끈하게 차린 사내도 서 있었다. 누이는 얼른 재순이부터 받아 앉았다. 분주히 젓을 물리고 나서 그 사내를 가리키며,

“이이가 너희 매형이다!”

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누이와 사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이가 재순이의 본 아버지야. 부산서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기에 날 팽개치구 달아난 줄 알았더니 그 동안 피신하구 있었대는구나 글썸. 어떤 사전이 있어서 숨어 지냈대. 그런데 인젠 그 사건두 무사히 다 해결이 나구 해서, 혹시 서울이나 오문 내 소식을 알까 싶어 왔다가 용케 만났지 뭐니!”

누이의 말이 내게는 끈이 믿어지지 않았다. 거짓말만 같았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누이의 말이 사실이면 어찌구, 거짓이면 어찌냐. 그 진부가 누이의 행복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부산행 열차의 개찰이 시작되었다. 누이는 더없이 만족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2~3일 뒤에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했다.<sup>89)</sup>

---

89) 손창섭, 앞의 책, p.270.

누이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매형이라 소개하고 더없이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부산으로 야반도주한다. 「설중행」의 고 선생이라면 인간의 도의를 이야기하며 누이를 비판했을 것이다. 그러나 철수는 다르다. 그는 소개 받은 남자가 진정으로 누이의 본래 남편인지 아닌지를 궁금해 한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질문이 누이의 행복과는 별개라고 생각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수가 누이의 행복을 이야기 할 때 전남편인 상근을 버리고 본래 남편이라고 소개해준 이에게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식도 없다는 점이다. 누이와 철수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관하여 그들이 왜 자연적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지 루소의 논의를 참조해 보자.

나는 문명의 삶 *vie eivile*과 자연의 삶 *vie naturelle* 중에서 어느 것이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이 되는지를 묻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 삶을 한탄하는 사람들밖에 찾아볼 수 없으며,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자기 삶을 포기 하려고까지 한다. 그리고 신의 법과 인간의 법을 합쳐도 이 무질서를 간신히 막을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미개인이 일찍이 삶을 한탄하여 자살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sup>90)</sup>

자연적 상태에서 어느 순간 사유재산이 탄생하고 문명사회에 들어서자 곧 무수한 금제와 법칙들이 만들어졌다. 이제 사람들은 문명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편리한 가치들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자 각자의 필요관계에 의해 저마다의 이기심이 눈뜨게 되었으며, 사회적 위치에 따른 불평등 따위의 것들이 생겨났다. ‘각자의 지위와 운명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아름다움, 체력이나 재주, 장점이나 재능 등에 의해서도 정해지게 되었다.’<sup>91)</sup> 때문에 공명심이

90) 장 자크 루소, 앞의 책, p.77.

91) 장 자크 루소, 앞의 책, pp.110~111.

나 허영심 등이 생겨나고, 온갖 기만적인 술책과 전략이 탄생하여 수없는 악덕을 만들어냈다. 인용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행복하려고 만들어낸 문명이 도리어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가치라는 것이 없었거니와, 문명세계에서 만들어진 특정 가치에 대한 추구는 인간들의 고통스런 정념을 양산하게 했을 뿐이다.

이제 철수와 누이의 모습이 왜 자연적 인간인지 정리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도덕의식과 무관한 삶을 산다. 특히 누이는 건강한 생명력과 강한 생활력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동물적 본능에 충실하고,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sup>92)</sup> 이와 같은 점에서 누이는 손창섭 초기 소설이 귀결되는 지점인 자연적 인간을 구현하는 인물이다.

이렇듯 종합하면 손창섭 초기 소설은 자기 자신에게 물화되고 절망하는 사람을 통해 인간의 모든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자연적 인간에 대한 추구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 6. 결론

그간 손창섭 초기 소설의 연구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손창섭 초기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유년시절 정서적 결핍과, 절망과 허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본고는 악셀 호네트와 키에르케고르의 이론을 원용해,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자기와 자기 자신의 관계 맺기에 실패한 인물들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2장의 물화에서는 악셀 호네트의 이론을 빌려, 자기 물화와 타자 물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살피고, 각각의 물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준거인들과 정서적 동일시를 통해 타인을 따라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상징계적인 의미를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준거인들에게 끊임없이

---

92) 그녀가 남편인 상근과 맺는 관계는 매우 단순하다. 그녀가 상근에게 맞아가며 돈을 내어주는 '스포츠'적 관계와, 서로의 동물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주 자리를 피는 관계가 전부다. 그 둘 사이에는 특정한 정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당하게 되면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 인정 망각에 빠진다. 자기 인정 망각이 극단이 이룬 존재는 자신을 인격체로조차 인지할 수 없게 된다. 손창섭 초기 소설의 인물들은 이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세계에 대한 무의미로 가득 찬다. 타자 물화 역시 타자에 대한 인정을 망각할 때 일어난다. 타인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으니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거리낌 없이 사용되는 것이다.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 보이는 싸움터로서의 세계는 이러한 면을 잘 보여준다.

3장은 키에르케고르의 이론을 원용하여 손창섭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절망자들을 분석했다. 그 중 1절에서는 연약함의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다뤘는데, 그들은 싸움터로서의 세계와 자신의 무의미에 절망만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2절에서는 절망자가 세계를 살아가는 태도를 분석했다. 그들은 인간의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험악한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반항의 절망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손창섭 초기 소설이 인간 모멸을 보여 왔다는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손창섭 초기 소설이 물화되고 절망하는 사람에 대한 탐구, 곧 인간에 대한 탐구라는 것을 확인했다.

4장은 손창섭 초기 소설 세계에서 귀결되는 자연적 인간을 다뤘다. 자연적 인간으로의 귀결은 손창섭 초기 소설 세계가 인간의 모든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데, 모든 가치가 파괴되는 곳에는 인간의 육체성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실몽」의 누이는 강한 생명력과 생활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성욕이 왕성하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누이는 루소가 말하는 자연적 인간처럼 자기보존의 욕심을 채울 뿐이며 그것으로 행복해 한다. 여기서 특히 철수는 매를 맞고 돈을 주는 사이로(그럼에도 누이는 상근에게 딱히 불만이 없는데, 심지어 철수는 둘의 그러한 관계를 스포츠라고 부른다) 관계하는 현 남편 상근을 버리고, 전 남편과 야반도주 하는 누이를 긍정함으로써, 사회의 가치가 개인의 행복과 무관함을 보여준다.

손창섭 초기 소설에는 유독 인간의 하잘 것 없음에 대한 모티프가 자주 등장한다. 초기 평자들은 그것을 두고 인간에 대한 모멸이라고 했고, 실존주의



적 입장의 연구자들은 그 하찮음이 전쟁이라는 처참한 상황과의 마주침, 타자와의 마주침에서 생겨났다고 했으며, 정신분석적 연구에서는 the phallus의 부재로 인한 상징계 진입 실패의 결과로 봤다. 그러나 살펴봤듯이 하찮다고 논의 되어 온 인간들은 자신과 세계에 무의미를 가진, 물화되고 절망하는 인간이었다. 그들은 자신과 세계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느끼며 절망한 채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정한 가치관에 기반 하여 다른 사람들을 물화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며 살아간다. 때문에 손창섭 초기 소설에서는 싸움이 강조되고, 인간의 가치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된다. 손창섭 초기 소설 세계가 귀착되는 자연적 인간은, 모든 사회적 가치가 무화됨으로써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 기본자료

손창섭, 『손창섭 단편 전집 I,II』, 가람기획, 2005,

### ■ 단행본

#### 1) 국내

강유정, 「손창섭 초기 소설의 자아와 주체연구」, 『국어국문학』 Vol. -No. 133, 2003.

공종구, 「손창섭 소설의 기원」, 『현대소설연구』, Vol. -No. 40, 2009.

김병익, 「원형과 검증」,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7

김상일, 「손창섭 또는 비정의 신화」, 『현대문학』, 1961. 7

김우중, 「야유의 인생, 야유의 문학」, 『사상계』, 1959. 4

송기숙, 「창작과정을 통해 본 손창섭」, 『현대문학』, 1964. 9.

송하춘 편, 『손창섭』, 새미, 2003.

신경득, 「반항과 좌절의 회화화」, 『한국 전후 소설 연구』, 일지사, 1983.

유종호, 「모멸과 연민」, 『현대한국문학전집 3』, 신구문화사, 1965.

유종호, 「소외와 허무—손창섭론」, 『손창섭 단편 전집1』, 가람기획, 2005.

윤병로, 「혈서의 내용 - 손창섭론」, 『현대문학』, 1958. 12

이광훈, 「폐배한 지하실적 자화상」, 『문학춘추』, 1964. 5

이선영, 「아웃사이드의 반항 - 손창섭, 장용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 1966. 12

이어령, 「유성균의 위치」, 『문학예술』, 1957. 2.

정창범, 「손창섭 - 자기모멸의 신화」, 『문학춘추』, 1965. 2

정호웅, 「손창섭 초기 소설의 인물성격과 형식」, 『작가연구』 창간호, 새미, 1996. 4.

조연현, 「병자의 노래-손창섭의 작품세계」, 『현대문학』, 1959. 4.

조현일, 『전후소설과 허무주의적 미의식』, 월인, 2005.

천이두, 「내성적 자의식적 소설론 - 불안문학의 계보와 관련하여」, 『현대문학』, 1968. 11

하정일, 「전쟁 세대의 자화상」, 『손창섭』, 새미, 2003.

## 2) 외국

쇠렌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임규정 옮김, 한길사, 2010.  
악셀 호네프, 『물화 : 인정認定이론적 탐구』, 강병호 옮김, 나남, 2006.  
장-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주경복 외 옮김, 책세상, 2010.  
존 D. 카푸토 지음, 『HOW TO READ 키르케고르』, 임규정 옮김, 웅진, 2008.

## ■ 학위논문

김지영, 「손창섭 초기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96.

김지영,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주체형성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5.

김현경, 「손창섭 단편소설의 반복 구조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5.

김현정, 「손창섭 초기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창원대 석사학위 논문, 2010.

김효진,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실존주의 경향」, 강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8.

류동규, 「손창섭 초기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1998.

박유희, 「1950년대 소설의 반어적 기법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2.

박현선, 「손창섭 초기 소설 연구 - 실존의식을 중심으로」, 경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4.

배개화, 「손창섭 초기 소설의 욕망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5.

변여주, 「손창섭 초기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3.

이경원, 「손창섭 초기 소설 연구 - 실존의식의 확립과정을 중심으로 -」, 덕성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이대욱,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풍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7.

임규정, 「키에르케고르의 자기의 변증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정혜정, 「1950년대 소설의 풍자성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93.

조미숙, 「손창섭 초기 소설의 실존주의 수용양태」, 창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8.

허영임,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욕망의 반복 양상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2000.

홍순애, 「손창섭 초기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2000.

홍주영,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부정 비판의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7.